

2009. 2. 16 제209호

세계도시동향

목 차

문화·디자인

1. 저소득층 젊은이의 문화·예술 작품 후원 (브라질 쿠리치바市)
2. 市의 생일을 기념하는 455m 길이의 케이크 (브라질 상파울루市)
3. '박물관의 긴 밤'에 도시문화 만끽 (베를린)
4. 시민 참여형 도시 브랜드 창조 프로젝트 (요코하마)

산업·경제

5. 경기불황으로 힘든 기업 위해 전문가 교육 (런던)
6. 문화 및 창조산업 2차 보고서 발간 (베를린)
7. '워크 라이프 밸런스' 향상을 목표로 한 경제 활성화 (요코하마)
8. '창조적 도시형 산업' 육성을 위한 제1호 사업 승인 (도쿄)
9. 내수 시장 활성화로 경기 활성화 (북경)
10. 외자기업의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중국)
11. 中 해외유학과, 상하이로 몰린다 (상하이)

목 차

건강·복지

12. 구직하러 다니는 실업자에게 교통요금 지원 (런던)
13.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포럼 실시 (런던)
14. 저소득층 노인 위해 500위안이 충전된 의료카드 발급 (북경)

도시환경

15.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시민 모임 (버클리)
16. 항공편 이용한 공무 출장 시 기후보호 세금 징수 (베를린)
17. 대규모 풍력발전기 설치 가능 (영국)
18. 폐수 배출 허용기준치보다 낮으면 인센티브 제공 (상하이)
19. 천연가스 이용량 최고치 기록 (북경)

도시교통

20. 가장 빠른 길, 휴대전화 문자로 물어 보세요 (런던)
21. 벌점 초과한 면허정지 운전자 재교육 (브라질 상파울루市)

도시계획·주택

22. 2009년 1600억 위안 SOC 투자 계획 (북경)
23. '싸고 질 좋은 집 만들기' 세미나 개최 (도쿄)

1. 저소득층 젊은이의 문화·예술 작품 후원 (브라질 쿠리치마市)

○ 쿠리치마市는 문화활동 평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저소득층 젊은이들이 제작한 문화·예술 작품을 후원하고 있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2003년에 이 프로그램을 신설함.

- 2008년 12월에는 프로그램 도입 5년 동안의 통계, 운영방법, 조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그룹의 후기 등이 기록된 책을 출간함.
- 2004년부터 현재까지 400건 이상의 프로젝트가 후원을 받았고, 2008년에는 705건의 프로젝트가 접수돼 이 중 115건을 선발함.
- 선발기준은 연령, 프로필, 프로젝트 실시 장소 등이며, 18~29세의 저소득층 젊은이에게 우선권을 줌.

(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p=27756)

>>> 전문가 검토의견

- 저소득층 젊은이를 위한 문화육성 프로그램은 많은 문화예술 지원기관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젊은 작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부터는 다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
 - 서울시 또한 서울문화재단의 ‘젊은 작가 지원 프로그램’과 ‘아마추어 문화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생활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전업 활동보다는 취미나 문화생활 차원에서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음. 따라서 아마추어 문화활동과 젊은 예술가를 적극 지원해야 함.
 - 경제적 위기에서 어려움에 처한 작가들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예술 전반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2. 市의 생일을 기념하는 455m 길이의 케이크 (브라질 상파울루市)

○ 2009년 1월 25일은 상파울루市가 탄생한 지 455주년 되는 市의 생일임. 매해 이 날이 되면 기념했수와 같은 길이의 케이크를 준비해 시민에게 나눠줌.

- 많은 분량의 밀가루와 버터, 크림, 설탕, 계란을 준비해 수십 명의 제빵사가 거대한 케이크를 만들어 거리에 진열한 후, 신호와 함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먹도록 함.

- 2009년 생일에는 예산이 없어 케이크를 만드는 대신 거리 바닥에 케이크 그림을 그려 대체함.

· 케이크를 그리는 데만 40명이 동원됨.

- 市 생일 케이크는 없어도 생일축하 행사는 진행함.

· 오전 7시부터 음악, 무용, 인물 흉내내기, 미녀 선발대회 등의 행사를 하루종일 엮.

(noticias.uol.com.br/ultnot/agencia/2009/01/21/ult4469u36324.j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상파울루市의 생일케이크 행사는 市의 생일기념 행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자리잡았음. 예산이 부족하자 생일케이크를 그림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생일케이크가 이 행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

· 생일케이크 행사가 상징적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행사를 진행해 오면서 생일케이크를 만들고 나눠먹는 과정에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냈기 때문임.

- 조선은 건국 초기인 1394년 10월 28일에 한양으로 천도했음. 서울시는 1994년 '정도 600년'을 기념해 이 날을 '서울 시민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 퍼레이드와 거리축제, 사물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음.

· 그러나 서울 시민의 날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는 매우 낮음.

- 2007년에 시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72.7%는 서울 시민의 날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75.5%는 서울 시민의 날 행사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연 위주로 행사가 진행될 뿐 서울 시민의 날을 대표하는 상징적이고 독특한 이벤트와 홍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볼거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생일떡 나누기’ 같이 서울 시민의 날이라고 하면 바로 연상되는 이벤트를 기획해 서울시민이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함.

/백선희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seonbaik@sdi.re.kr)

3. ‘박물관의 긴 밤’에 도시문화 만끽 (베를린)

- 베를린市는 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밤 2시까지 ‘박물관의 긴 밤’(Long Night of Museums) 행사를 열었음.
 - 이 행사는 1997년에 처음 시작된 도시의 밤 문화행사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도시문화 이벤트임.
 - 처음에는 베를린市의 12개 미술관과 박물관이 참가했지만 현재는 180여 곳의 미술관, 박물관, 문화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베를린 시청도 참여해, 시청 안에 전시된 작품과 시청 문화공간, 시장 집 무실을 개방함.
 - 티켓 하나로 베를린 시내의 모든 문화공간과 대중교통,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셔틀버스는 60여 곳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직접 연결 운행함.
 - 티켓 가격은 행사 전날까지 예매할 경우 12유로(약 2만 원)이고, 당일 구매하면 25% 할증됨.
 - 2008년 행사에 15만 명이 방문하는 등 관광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베를린市의 밤 풍경이 매력적으로 변화했고, 주말에 여유있게 문화를 즐기는 이벤트로 자리잡아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이 행사는 하룻밤 동안 문화적 활기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활기도 불어넣어 주고, 베를린의 문화 도시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090130.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특정일이나 주간을 이용해 문화시설을 개방하는 사례는 세계적 추세이자 중요한 마케팅 방법임.
 - 베를린市 외에도 런던, 토론토 등 다수의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티켓 하나로 다수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나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특징임.
- 서울시 또한 2008년부터 ‘서울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도심권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 등을 개방한 이 행사에는 올림픽 야구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는데도 10만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룸.
- 다수의 클럽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홍대 클럽데이’나 종로구청이 운영하는 ‘미술관·박물관 패스’ 등은 모두 공동마케팅 프로그램의 하나임.
 - 티켓 하나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이벤트가 되므로, 시민의 문화시설 이용 촉진이나 문화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4. 시민 참여형 도시 브랜드 창조 프로젝트 (요코하마)

- 요코하마市는 개항 150주년 역사를 가진 도시 브랜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Imagine YOKOHAMA’ 프로젝트를 실시함.
- 도시 브랜드란 도시명 자체를 브랜드화해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도시로 만드는 것임.

- 지명과 상품을 묶어 만들어 내는 지역 브랜드와는 달리, 주민이나 기업의 지지를 받아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함.
 - 도시 브랜드는 역사 자산이나 관광 자원이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도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도시의 자산과 자원을 발전시켜 브랜드화하는 것임.
- 시민 주체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열어 30만 명을 목표로 의견을 수집함.
- 인터뷰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수만 명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민 연계 인터뷰’라는 새로운 방법을 실시할 계획임.

(www.city.yokohama.jp/me/keiei/seisaku/brand)

한 줄 뉴스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천체의 해’ 맞아 100만여 명이 천체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는 기념행사 개최
 - 장애 학생을 직접 방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 개선하는 프로그램 실시
- 브라질 상파울루市
 - 하루종일 무료로 스포츠, 게임 등을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슈퍼방학’ 프로그램 2월 22일까지 실시

5. 경기불황으로 힘든 기업 위해 전문가 교육 (런던)

○ 런던개발청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세미나 사업이 기업 관계자들에게 인기임. 런던개발청은 경기불황에 힘들어하는 기업을 위해 기업 전문 컨설턴트社에 의뢰해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음.

- 런던을 계속 '일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목표로, '영세기업이 경기 불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주제로 진행함.
 - 주요 주제는 지출삭감 전략, 대안적 현금창출 방안, 불황에 사업계약을 따내는 법, 중앙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해설 및 활용방안,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 혜택제도, 신규사업 개척 방안 등임.
-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 현실과 규모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얻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함.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005)

6. 문화 및 창조산업 2차 보고서 발간 (베를린)

○ 베를린市는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문화 및 창조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그동안 문화 및 창조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이를 통해 이 분야의 성장 조건이 많이 개선됨. 2009년 1월 21일에는 문화 및 창조산업에 대한 제2차 보고서를 발간함.

-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베를린市의 문화 및 창조산업의 총매출액이 25% 증가함. 이 분야의 회사 수는 33% 증가했으며 여기에 16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남.
- 문화 및 창조산업 관련 회사는 대부분 베를린 도심에 집중돼 있으며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음.
 - 이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베를린市에 정착할 수 있었음.

- 베를린市 경제부는 2015년까지 문화 및 창조산업의 종사자를 20만 명으로 늘리고 회사의 성장을 지원해, 이 분야의 경제규모를 연 200억 유로로 확대한다는 방침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1/21/118853/index.html)

7. ‘워크 라이프 밸런스’ 향상을 목표로 한 경제 활성화 (요코하마)

- 요코하마市는 산업지원 NPO 등과 협동해, 자유로운 주제로 요코하마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사업계획을 모집함.

- 경제를 새로 담당하는 조직은 비영리 공익 민간조직이어야 하며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기존 조직에는 없는 특성있는 주체여야 함.

- 이번에 선발된 ‘I love 츠즈키’ NPO 법인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 향상을 목표로 텔레워크를 추진함.

- 워크 라이프 밸런스란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의미하며, 텔레워크는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일하는 방법임.

-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향상하기 위해, 여성과 1948년 전후로 태어난 세대의 인재를 활용하고, 업무의 효율화·비용 삭감·우수한 인재 확보 등을 도모하며, 시민·기업·지역 간의 제휴를 통해 텔레워크를 활성화하도록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제시함.

- 지원금은 3년간 600만 엔(약 1억 원)임.

(www.city.yokohama.jp/me/keizai/happyou/h20/201225_2.html)

8. ‘창조적 도시형 산업’ 육성을 위한 제1호 사업 승인 (도쿄)

- 도쿄都는 ‘10년 후의 도쿄’ 계획이 목표로 하는 ‘창조적 도시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창조적 도시형 산업 집적 창출 조성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이 사업은 지역의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조적 도시형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계획이 시작되면 3년간 1억 5000만 엔(약 22억 원) 한도로 지원하게 됨.
- 제1호로 승인 받은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오타區는 제조기술 산업의 재구축을 도모함. 환경·건강 관련 산업이나 항공기·로봇 관련 산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계 금속 분야를 중심으로 고도기반 기술 기업이나 연구 개발형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네리마區는 지역 공존형 애니메이션 산업 집적 활성화 계획에 지원받기로 함.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의 국제비즈니스, 작품 제작, 인재육성 등을 지원해 애니메이션 핵심도시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임.
 - 하지오지市에는 제조 산업진흥 계획을 실시하기로 함. 정밀, 기계, 전자기기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해 세계 최첨단 제조산업 지역으로 발전시키 고자 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1/20j1s400.htm)

9. 내수 시장 활성화로 경기 활성화 (북경)

- 북경市는 9년째 두 자리 수 경제 발전을 해왔으나 2008년 처음으로 2007년보다 4.3% 하락한 9% 성장을 기록함. 전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외 수요가 하락하는 등 북경市 경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음.
- 국외적인 상황은 어렵지만 여전히 강한 내수 수요가 북경市 경제의 주요 지탱 역량임. 2008년 소비시장의 활성화로 전체 소매 판매액수가 전년보다 20.8% 상승함.
 - 가격적인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실질 증가율이 15.7%에 달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도매 및 소매기업의 판매액 중 스포츠 관련 용품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함.

- 보석류 매출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0.5%, 자동차 매출액은 28% 늘어남.
- 북경지역 내 증권시장 발전은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보임.
 - 2008년 증권거래량은 40% 하락했지만 2008년 말까지 새로 증권계좌를 연 사람이 370만 명에 달하는 등 같은 기간 대비 18.6% 증가함.
- 금융위기 속에서도 취업현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 대량해고 사태는 나타나지 않음.
 - 노동 및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2월 말 북경市에 등록된 실업인구는 10만 3300명으로,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한 가운데 공식적인 실업률은 1.82%로 나타남.

(zhengwu.beijing.gov.cn/gzdt/bmdt/t1017438.htm)

10. 외자기업의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중국)

-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이나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 그동안 중국 내 기업과 차별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적용해 왔던 ‘도시 부동산세 잠정조례’를 2009년 1월 1일부로 폐지하고, 내외자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 부동산세는 부동산 시세의 70%에 1.2% 세율을 적용하며, 부동산 임대수입 세율은 현행 18%에서 중국 내 자본과 같은 수준인 12%로 6%포인트를 낮춰 적용함.
 - 세금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전에 외국기업이나 개인은 낼 필요가 없었던 도시건설비와 교육분담금을 각각 세금의 7%, 3% 지불해야 함.
 - 전문가들은, 외자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번 조치가 외자의 중국 부동산시장 이탈을 예방하고 외자투자 유치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음.

(news.xinhuanet.com/fortune/2009-01/29/content_10732782.htm)

11. 中 해외유학과, 상하이로 몰린다 (상하이)

- 중국의 해외유학생이 상하이市로 몰리고 있음. 상하이市에서 직장을 얻거나 창업한 해외유학생 수는 현재 7만 5000명으로, 중국 전체의 1/4임.
- 이들이 상하이市에서 창업한 기업만 4000개에 이르며 투자한 금액은 5억 달러(약 7000억 원)에 이룸.
- 중국의 해외유학생이 상하이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경제 중심으로서 상하이市가 부각되었고, 상하이 시정부가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임.
 - 市는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해 11곳의 유학생 창업원구를 설립하고 매년 4000만 위안(약 80억 원)을 해외유학생의 창업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창업원구에 들어오는 유학생에게는 자녀 학교입학, 학술교류, 사회보장, 의료문제 등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함.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
userobject21ai318173.html)

한 줄 뉴스

- 영국
 - 효율적인 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주택 커뮤니티청' 신설
- 도쿄
 - '중소기업 매력 홍보 프로젝트'를 실시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인재발굴에 나서

건강 · 복지

12. 구직하러 다니는 실업자에게 교통비 지원 (런던)

- 런던시는 경기침체로 늘어난 실업자들이 새로 자리를 잡을 동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혜택을 대폭 늘린다고 발표함.
- 런던시장이 12월에 발표한 '경기회복 실행계획'(Economic Recovery Action Plan)의 일환으로, 구직자 지원금(JSA: Job Seeker's Allowance), 고용 지원금(ESA: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을 받는 실업자가 버스와 트램 요금을 절반만 내고 이용하는 혜택을 받는 것임.
 - 교통비 할인 혜택을 우선 실행하게 된 이유는, 취업 면접에 참석하고 도서관·취업알선센터·인터넷 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구직활동에 교통시설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임.
 - 저소득층에만 적용되던 복지 혜택이었으나 경기 회복책으로 판단돼 적용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음.
 - 제도 시행은 2009년 4월 1일부터이며,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런던시민은 총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저소득층은 아니라 사회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됨.
 - 이번 제도 시행으로 런던시가 부담할 예산은 연간 300만 파운드(약 59억 4700만원) 규모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0498)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2951)

>>> 전문가 검토의견

-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비 할인 사업은 긴박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복지혜택의 대상을 차상위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실업자의 구직활동에 대해 좀더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될 것임.
- 서울 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 현실적인 지원 제공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신빈곤층이나 빈곤 위험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확대돼야 할 것임.

/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unjakm@sdi.re.kr)

13.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포럼 실시 (런던)

-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은 50만 파운드(약 10억 원)의 재원을 투자받아, 실직자로 구성된 장애인 150명이 스포츠 활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함.
 - ‘장애인을 위한 런던 스포츠 포럼’을 통해 스포츠를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도울 예정임.
 - 축구, 크리켓 등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스포츠 종목 13개가 포함됨.
 - 장애인들은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훈련을 받은 후 자격증을 받게 됨. 이를 통해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활동의 목표치를 500%까지 올릴 계획임.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1984)

14. 저소득층 노인 위해 500위안이 충전된 의료카드 발급 (북경)

- 북경市 자선협회는 2009년 1월 자선공익금 중 일부를 투자해 저소득층 노인 3만 7000명에게 500위안(약 10만 원)이 적립된 의료자선카드를 제공하기로 함.
- 자선협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기부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과 시민의 참여로 2009년 설 연휴 동안만 1700만 위안(약 35억 원)을 모금해 약 2만 7000명의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함.
-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 모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정부구제의 범위를 확대해 보충할 계획임.
- 저소득 계층에게 학비를 제공하는 사업도 실시해 대학생 2000명에게 1년치 학비를 제공함.

(zhengwu.beijing.gov.cn/bmfu/bmts/t1017134.htm)

도 시 환 경

15.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시민 모임 (버클리)

- 버클리市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토론하는 정기적인 시민 모임을 운영할 계획임.
 - 한 달에 4번 정도 모임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개인이 얼마큼 탄소를 소비했는지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s: 하나의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지 계산하여 표기하는 것)을 통해 알아본 후, 어떻게 하면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 토론함.
- (www.sfgate.com/cgi-bin/article.cgi?f=/c/a/2009/01/19/BA3J15C3EC.DTL)

16. 항공편 이용한 공무 출장 시 기후보호 세금 징수 (베를린)

○ 2009년 상반기부터 베를린市는 항공편을 이용한 모든 공무 출장 시, 환경을 오염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보상으로 기후보호세를 징수할 계획임.

- 기후보호세는 자연보호재단과 환경 보전사업을 지원하는 데 투입될 예정임.

· 세금은 항공편 이용 출장의 거리에 따라 산정됨.

- 이 제도 도입으로 공무출장이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되기를 바라며, 출장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1/20/118782/index.html)

17. 대규모 풍력발전기 설치 가능 (영국)

○ 영국정부는 영국 전역의 가정에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을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를 해안가에 설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의 달성과 기후변화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 해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왕립부동산’(Crown Estate)은 현재 풍력발전소 개발을 위한 3단계 계획을 개발 중임.

- 현재 영국에서는 7개의 풍력발전소가 작동 중이며, 다른 5개는 건설 중임. 9개의 풍력발전소는 허가가 났으며 2개는 도시계획 허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

·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해변의 풍력에너지를 만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혜택을 늘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876128)

18. 폐수 배출 허용기준치보다 낮으면 인센티브 제공 (상하이)

○ 상하이市 환경보호국은 배출 허용치보다 낮게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그린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임.

-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오폐수 처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임.

- 관련 업체에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COD 농도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고자 함.
- 이 정책은 지역별 오폐수 처리장의 표준기준에 따라 인센티브가 다름.
 - 오폐수 처리 능력이 5만톤/일이고 COD 배출 표준농도 100mg/L인 오폐수 처리장이, 실질 배출농도가 80mg/L보다 낮을 경우 1m³ 오수 처리당 0.04 위안(73만 위안/년)의 오수처리비를 보상해 줌.
 - 60mg/L보다 낮을 경우 1m³ 오수 처리당 0.08위안(146만 위안/년)의 오수 처리비를 보상해 줌.

(www3.xinhuanet.com/chinanews/2008-12/18/content_15222077.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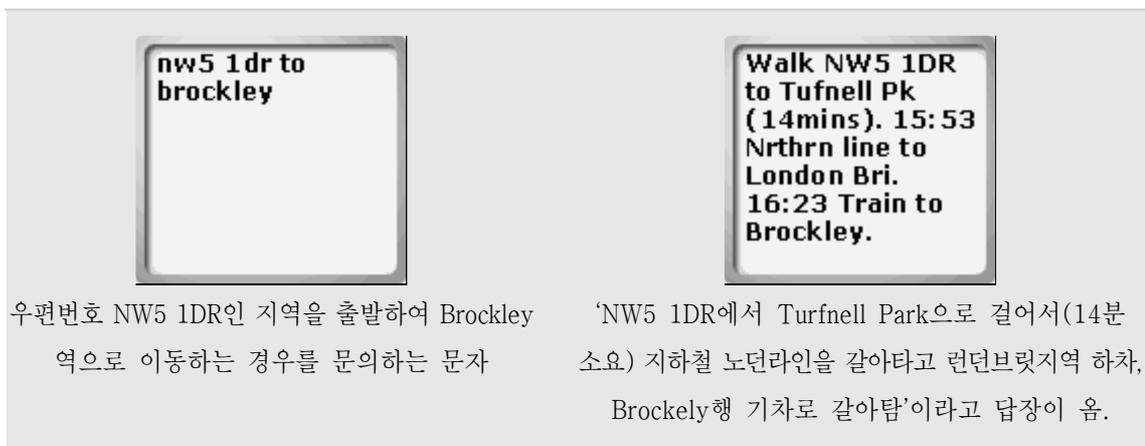
19. 천연가스 이용량 최고치 기록 (북경)

- 북경市 천연가스공사에 따르면, 2008년에 천연가스 이용량이 늘어나 역대 최고 이용량을 기록함. 북경市가 2008년 북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이에 따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 이용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최근 북경市 최대 천연가스 집결지가 정식으로 세워지면서 천연가스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시간당 유량이 305만m³로, 건설용이나 시민이 원하는 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 도시 천연가스 공급능력의 향상과 함께 천연가스 사용 가구도 크게 늘었음.
 - 가스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말까지 한 해 천연가스 이용가구 수가 18만 호 증가함.
 - 천연가스와 액화가스 두 가지를 이용하는 가구 수는 모두 468만 7000여 가구인데, 이 중 천연가스 이용가구 수는 355만 여 가구임.

(newspaper.bjd.com.cn/bjrb/html/2009-01/20/content_109918.htm)

20. 가장 빠른 길, 휴대전화 문자로 물어 보세요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출발지와 행선지만 간단히 적어 교통공사에 문자를 보내면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문자로 정보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실시함.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좀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함.
- 우편번호나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이름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정보를 간단히 작성하여 60835번으로 문자를 보내면, 최종 도착지로 연결되는 빠른 교통편명과 시간표를 받아볼 수 있음.
 - 교통공사에 문의하는 문자요금만 부담하면 됨.
- 지하철 실시간 운행정보나 지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간단히 ‘노던라인 지하철’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실시간 운행정보, 지연 이유와 간단한 교통전망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음.



(www.tfl.gov.uk/tfl/livetravelnews/mobileservices/sms.asp)

>>> 전문가 검토의견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정확한 대중교통 이용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런던市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

- 서울시도 이미 서울 'TOPIS'(topis.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기존의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쉬울 것임.
- 다만, 'ALGOGA'라는 수도권대중교통정보시스템(www.algoga.go.kr)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체가 중복된 교통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문제를 사전에 고민해야 함.
- 모바일 서비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주로 젊은 층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제공 서비스 매체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임.

/고준호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jko@sdi.re.kr)

21. 벌점 초과한 면허정지 운전자 재교육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는 교통위반을 많이 한 운전자를 재교육해 위반율을 낮추고자 함. 지난 12개월간 운전 벌점 20점을 초과했거나 음주운전, 불법 자동차 경주 등 심각한 교통위반을 한 운전자는 정도에 따라 1개월에서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됨.

- 市 교통국은 면허정지 해당자 2만 4000명에게 통보함.
 - 교통국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분증, 납세자증명서, 거주증명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교통국에 항의서를 제출해야 함.
- 면허를 정지당한 운전자는 교통국에 가서 30시간 재교육(무료)을 받거나 자동차운전학원이나 상업인력양성소에 가서 재교육을 받아야 함(유료).
 - 면허정지인데 운전하다가 걸리면 6개월~1년 구속과 벌금형이 따름.
 - 정지된 면허는 재교육 과정 이수증을 제출해야 원상회복됨.

(www.estadao.com.br/noticias/cidades,novas-regras-para-reaver-habilitacao-comecam-em-julho,306520,0.htm)

22. 2009년에 1600억 위안 SOC 투자 계획 (북경)

- 북경市는 2009년에도 사회기반시설 건설 투자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을 것으로 보고 연간 약 1600억 위안(약 32조 7000억 원)을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계획임.
- SOC 건설이 정착단계에 이르면 빠른 속도로 도시가 도시화, 현대화, 디지털화, 국제화될 것으로 자신함.
- 북경市는 2008년 북경올림픽 준비기간에 도시건설에 투자하면서 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북경市의 사회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편임.
 - 주요 간선도로 건설은 계획의 50% 정도 밖에 실현되지 않았음.
 - 전산망 개조 작업 등 시행해야 할 기초건설 작업이 많이 남아 있음.
 - 도시난방을 청정에너지로 개조하는 등의 문제도 숙제임.
- 기초건설 투자는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빠른 특징이 있음.
 - 기초건설 투자 중 설비 원재료 구매가 일반적으로 70%를 차지해 구매력이 향상됨.
 - 부동산 시장 발전을 자극하고 산업투자를 촉진하며 소비를 진작시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초건설 투자가 100억 위안(약 2조 400억 원) 증가할 때마다 GDP는 240억 위안(약 4조 9000억 원)이 증가함. 2009년에는 내수확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기초건설 투자를 안배할 계획임.

(www.beijing.gov.cn/ggfw/tzz/tzdt/t1018046.htm)

>>> 전문가 검토의견

- SOC 투자는 여러 산업에 걸쳐 상당한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중국 경제도 세계경제와 더불어 미국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SOC 투자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

- 최근 북경올림픽을 전후해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SOC 인프라 투자를 위주로 한 건설시장 활성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투자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려해야 함.
 - 대중교통 인프라에 먼저 투자하고 에너지 구조 개편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방향이라 할 수 있음.
 - 대도시 위주의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낙후된 농촌지역의 인프라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손기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kmsohn@sdi.re.kr)

23. ‘싸고 질 좋은 집 만들기’ 세미나 개최 (도쿄)

- 도쿄都是 민간 주택사업자와 함께 ‘100년 건강 주택’, ‘신세대 주택’ 등 다양한 웰빙 주택을 선보이며 ‘히가시무라야마市 혼조 지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음. 2009년 2월 10일에는 그간의 실증 실험을 거쳐 개발해 온 ‘주택 생산 합리화 수법’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함.
-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생산하기 위한 노하우와 참고가 될 만한 최신 동향도 소개함.
- 현지로 이동해 완성된 웰빙 주택 모델하우스와 교외형 거주 모델 마을의 실제 거리 풍경을 견학함.



교외형 거주 모델 마을의 풍경

(www.toshiseibi.metro.tokyo.jp/topics/h20/topi064.htm)